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4월 25일)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유튜브 속 불교 반감 돌파구가 필요하다

[진단] 유튜브 전성시대, 불교 명과 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인기와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유튜브 속 떠들썩한 법석에 대한 반감이다. 이와 함께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콘텐츠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불교계 대표 힐링멘토로 꼽히는 A스님은 지난해 말 베스트셀러 책을 내고 방송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만큼 반감을 사고 있다. 다음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A스님과 연관된 감정분석에서 '좋은' '밝은' 등 긍정적 감정과 함께 '싫다' 등 부정적 감정도 함께 제시된다. 커뮤니티상 관련글의 긍·부정 상세분석에서도 약 25% 가량이 부정적 메시지를 띄고 있다.

A스님이 올해 3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가 2만8000여 명에 달하는데, 스님은 한때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구독을 부탁해 당시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광고수익 전액을 어르신 급식 사업에 기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지난 4월 스님이 유튜브에 올린 1만 명 구독자 감사 인사 영상 또한 세간의 지적에 현재 삭제된 상태다. SNS상에서는 해외 국적 교포들의 한국 활동을 비꼬는 '검은머리 외국인'(검머외)에 빗대어 스님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들어 '민머외', 스님의 님을 뺀 호칭까지 나돌고 있다.

일찍이 유튜브에 진출한 불교계 대표 저명인사 B스님의 경우도 최근 안보상황과 맞물려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유튜브 구독자 수 50만명에 누적조회수가 5억4000만 뷰에 이르는 B스님은 5월 초 대북 인도지원차 방북해 화제가 됐다. 이 스님의 썸트렌드 상·부정 상세분석을 보면 부정적 여론이 30%를 넘는다.

활발한 활동만큼 반감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아직 대중에게는 스님이란 고유 이미지가 남아있고, 여기에 기대하는 면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지만 이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며 "결국 불교 전법을 인기있는 일부 스님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가 여기서 나온다. 불교의 내재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님을 위장한 몰카 등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X님, 수X한녀석들 등의 유튜버들이 스님으로 분장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논란에 쌓인데 이어 최근 유튜버 배X빌라와 덕XTV 등에서 아예 승복을 입고 '스님이 홍대에서 번호를 딴다면' '미X 스님 몰카' '스님 변장하고 교회서 예배보기' 등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영상은 올해부터 몰래카메라 자작극으로 조회수 70만회부터 300만회까지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 잠잠했던 유튜브 속 불교 폄훼 콘텐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 멘토 스님들 채널 개설
인기 좋지만 20~30% 부정적
불교·스님 비하 콘텐츠도 증가
혐오금지법 제정 목소리 높아
"리터러시(식별) 교육에 관심을"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인 미디어가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간 경쟁도 심화된다. 종교에 대한 희화화나 왜곡 등으로 주의를 끌고자 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혐오금지를 명시한 법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가려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식별) 교육 등에도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젊은 세대들은 영상 소비문화에 익숙하고 종교를 넘어 자극적인 영상을 찾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구독과 조회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들이 더욱 많다"며 "하지만 명상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세대들도 많기에 유튜브 내 불교의 본모습을 보여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禪 세계화, 이곳에서부터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센터가 문을 열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5월 23일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총 5개동으로 이뤄진 선문화체험관은 참선부터 다도, 사찰음식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진은 참석 내외빈들이 개관을 기념하며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A3면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선종사서 '대행선' 위치·위상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6월 15일 제3회 학술대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개최
전문 학자 6명 발표·토론도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선사상이 선종사에서 어떤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6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문학자 6명이 선종사 안에서 대행선의 위치와 의의를 조명하는 논문들을 발표한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니까야(Nikāya)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를, 이석환 동국대 교수는 '하쿠인(白隱)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오지연 동국대 교수는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을,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를 대중에게 전할 예정이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를, 오경후 동국대 교수는 '한국 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를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교수 정도 스님, 조준호 동국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최동순 동국대 교수, 박인석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올해는 대행 선사가 탄생한지 92주년이며, 열반하신지 7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선사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정진했고, 증득한 바를 일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했다.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홍익중생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대중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때 이른 더위 속 하안거 결제

조계·태고종 2000여 수좌들 정진 들어가

때 이른 더위도 대오견성을 향한 운수납자들의 방부를 막진 못했다. 5월 19일 불기2563(2019)년 기해년 하안거 결제가 전국 100여 선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여름과 겨울에 각각 실시하는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조계종에서 안거마다 2000여 명의 수좌들이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화두참구에 나선다. 태고종 역시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전국사찰에 수좌들이 참여, 납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정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를 맞아 "여름과 겨울에 사부대중이 모여 결제하는 수행전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훌륭한 전통"이라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은 다시금 결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대오견성하겠다는 용맹심으로 임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역시 "총림에서 정진하는 납자나 자기 사찰에서 정토염불기도 하는 종도나 마음 찾는 공부는 똑같다"며 "이번 한 철에는 분별시비하지 말고 원융화해 큰마음으로 부종수교의 본분을 다하는 승가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정·총림방장 법어 A7〉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번뇌煩惱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救援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의례 논란에 부쳐

지난 5월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한 사찰에서 진행된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합장과 관불(灌佛) 의식을 거부했다고 하여 모든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신앙 생활을 존중합니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남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다른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을 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이나 독실한 기독교인 황교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기 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앙에만 투철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는 불교 의례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날 이렇게 우려할만한 언행을 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현란(絢爛)한 정치나 어느 한 이념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던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발표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예하의 봉축 법어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 개인을 위한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와 권위의 시대를 지나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획일화하고 통제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고,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범주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특히 지도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자세를 가장 잘 실천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사회통합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무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섬기지 않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서 그 예를 갖추는 것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지 우려됩니다.

십여 년 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장에서 거룩한 인류의 스승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직접 일러주신 종정 예하의 봉축 법어를 황교안 대표님께 전해드리며 그 뜻을 화두삼아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깊이 참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뇌煩惱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救援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불기2563년 5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